

## 7차시.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학습목표

1. 국내법령에서 제시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사고유형과 판례분석을 통해 **처벌 관련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3.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교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를 설명할 수 있다.

## 1. 개요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의 개념

### 1.1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의 정의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 1.2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횡단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1.3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 ①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 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② 보행자가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신호가 깜빡이거나 적색으로 변경 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③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④ 횡단보도 전 지점에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⑤ 횡단보도 내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를 우회전 중 충격하는 사고
- ⑥ 횡단보도 전에 정지하고 있던 앞 차량을 추돌하여 앞 차량이 밀려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

## 2. 대표 사고유형

(1)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 횡단 중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온 차량과 충돌하였을 경우, 처벌 가능한가?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입건 처리된다. 횡단보도 보행자라 함은 걸어 다니는 사람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를 포함한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2)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던 중 자동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

- 고속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 경우라면 보호가 가능하다.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정상 횡단 중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났으나 그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지점이 비록 횡단보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행동을 믿지 말고 항상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3. 사례

(1)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하는가?

-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한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후에도 계속 보행을 하는 운전자를 발견한 경우, 보행자가 횡단을 다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나, 혹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우선 보행자의 잘못도 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과실사고로는 처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 2939 판결).

(2) 횡단보도보행자가 아닌 횡단보도 밖에서 그 사람과 동행하던 제3자가 다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04.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3) 교차로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인명사고 발생시 형사처벌받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책임을 진다.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한다.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도3529 판결).



## 4. Q&A

횡단보도 노면에 누워 있는 사람을 충격 시,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가?

-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지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었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 5. 안전가이드 Tip

- ①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인 경우 반드시 정차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②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한다.
- ③ 보행자의 행동을 믿지 말고 항상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④ 횡단보도 전에서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인다.
- ⑤ 횡단보도 앞 바깥 차선의 경우 감속하여 운행한다.
- ⑥ 횡단보도 통과시에는 가급적 속도를 줄인다.
- ⑦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뀔 때 보행자가 뛰어 나오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정지한다.
- ⑧ 횡단보도 부근 주행 시 가속 페달 사용을 줄여 차량을 언제라도 감속하기 용이한 상태로 둔다.
- ⑨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를 밟는다.
- ⑩ 신호가 바뀌어 정차할 때에는 정지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브레이크를 여러 차례 끊어 밟는다.
- ⑪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럽기에 횡단보도에서 급정거 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
- ⑫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가까이 서있거나 골목길을 걷고 있는 보행자를 보면 주의해서 운전한다.